



왼쪽부터 박이문 · 정옥자 · 황상익

‘지식’ 아닌 ‘지혜’ 전해주는 고급 에세이

학문적 성취 이론 전문가들의 목소리

세상일에 초연하며 책더미 속에 묻혀 있는 것은
더이상 지식인의 표상이 아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닦은
전문지식과 깊이 있는 사유를 접목해 세상과
시대에 대해 말하는 지식인들이 많아졌다.

최근 학문적 성취를 이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에세이가 많아지고 있다. 그 책에는 상아탑에서 익힌 지식이 그득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이기 때문이다.

인문학계가 주도한 흐름

이런 흐름은 문학이나 역사 등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인문학계가 주도했다. 에세이를 꾸준히 써 온 박이문 교수(포항공대)는 철학자고, 정옥자 교수(서울대)는 역사학계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국학 분야의 김열규 교수(인제대)는 독특한 문체가, 정과리 교수(충남대)는 날카로운 분석력이 눈에 띈다.

과학철학을 전공한 박 교수는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당대) 등에서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서양적 세계관 대신 일원론적 형이상학과 자연중심적 가치관을 가진 동양적,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부분 칼럼의 형태로 씌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나 시대에 대한 발언이 빠지지 않는다. 《역사에세이》·《역사에서 희망읽기》(이상 문이당), 《시대가 선비를 부른다》(효형출판, 공저) 등에서 ‘선비정신’을 역설한 정옥자 교수는 조선 후기 지성사 연구를 통해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법률적 규제보다 교화나 덕치를 추구한 선비정신이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필요하다고 말한다.

평문이 어렵기로 소문난 정과리 교수(충남대)는 《문명의 배꼽》(문학과 지성사)에서 이미지 문명의 반사고(反思考)를 비판했는데, 방법론은 ‘평론’에서 가져왔다. 신세대의 ‘내 멋대로 한다’식의 유행에서 ‘압제에 대한 그리움’을, 압구정동에서 사람의 얼굴을 하고 흘러 다니는 기호들의 명멸을, 방대하고 휘황한 컴퓨터의 세계에서 ‘허용된 공간의 자유’를 찾아낸 것은 분명 문학평론을 하던 분석력이다.

김열규 교수의 경우도 《한국의 문화코드 열다섯가지》(금호문화), 《육, 그 카타르시스의 미학》(사계절)에서 도구와 방법론으로 우리와 친숙한 작

은 기호들을 선택했다. ‘한국문화’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밝히되, 스펀과 비교한 손가락의 생김새와 기능에서 ‘민족의 어떤 내면적 속성, 곧 정서와 감정 및 집단적인 인품’을 읽거나 옥의 탄생과 그 변주(變奏)를 더듬고 살피는 사이사이, 민초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옥의 문화사랄까, 사회사를 짚는다.

생물학 · 의학 등으로 분야 넓혀

생물학이나 의학도 사람 살아가는 이치를 전하는 좋은 매개가 된다. 가령 해삼과 숨이고기 공생,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 살모사, 세균·곰팡이의 침입을 막는 화학물질이 사람들에게는 이로운 마늘·양파. 《생물의 죽살이X생물의 다살이X바다를 건너는 달팽이》(이상 지성사)를 쓴 권오길 교수(강원대)는 이런 생물학적 지식을 통해 ‘겨름과 다름’이 아닌 ‘비켜 숙임과 베풀’을 배우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서울대 의대 황상익 교수는 의사학(醫史學)을 통해 인간을 위한 문명, 인간을 위한 의학을 이야기한다. 《문명과 질병으로 보는 인간의 역사》(한울림)·《첨단의학시대에는 역사시계가 멈추는가》(창작과비평사)에서 생산력의 단순한 팽창과 성장만을 지향해온 문명이 빛은 끄찍한 결과를 상기시켰다. 첨단 과학시대라도 인간존엄성과 자주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겸손함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의료관(觀) 과학관(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는 세상 일에 초연하며 책더미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지식인의 표상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식이 더이상 권력이 아니며 학문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공허한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독자들은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경험을 일반 대중을 향해 터뜨려 주길 고대한다.

— 이현주 기자